

# 한국 교육복지 연구 동향

## Trends in Education Welfare Research in Korea

진혜경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Hye-Kyung Jin(forscien@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한국 교육복지 연구를 분석하여 학문적 위치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과 함의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석사, 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 총 596편의 연구 주제, 대상, 방법에 대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복지 연구가 사회복지학 뿐 아니라 교육학 등 인접 학문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제도화 관련 연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전문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대상은 중고생이 가장 많았으며,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양적 연구방법이 주도적이거나 질적 연구의 비율이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연구 동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제언으로는 다학문적 접근의 필요성과 특정 주제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는 주제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교육복지 | 연구동향 | 내용분석 |

###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the trends of Education Welfare researches in Korea. For this study, a content analysis was employed in relation to topics, targets and methods of 596 articles, masters and doctoral thesis published from 2003 to 2012.

The results reveal that the papers have expanded to adjacent fields. The analysis of the topics shows that institutionalization papers have decreased, on the other hand, researches on the role of the social worker showed an increase. Middle school students were the most common target and quantitative methods were the most used. In future, multi-disciplinary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es presenting a wide diversity of topics and targets should be considered.

■ keyword : | Education Welfare | Trends | Content Analysis |

## I. 서론

교육은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으로 복지와 같은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교육과 복지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교육소의 학생을 위한 교육 불평등 완화는 교육

복지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13][25].

따라서 교육부는 2003년부터 서울과 부산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교육복지 사업)은 교육소외, 빈곤 학생의 교육기회 확충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2년 10월 현재 전국 1,710개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이다[21].

교육복지는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모든 국민이 언제나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지만 그 핵심은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사회복지에 있다[25]. 1992년 대통령 교육정책자문회의가 교육복지실현을 위하여 학교사회사업요원의 배치와 교육복지법의 제정을 건의하였지만[1], 전국 초, 중, 고등학교로 가시화된 것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과 2004년 교육부의 학교사회복지 연구학교가 계기가 되었다.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이제 초등학교의 24.7%와 중학교의 56.8%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교육소의 학생을 위한 서비스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21]. 따라서 이제 효과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모델과 이론의 구축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교육복지 역사는 최초로 학위 논문이 나온 지 40여년에 불과하지만, 교육복지가 시작된 영국과 미국은 100여년의 실천 역사를 갖고 있으며,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실천 모델과 이론을 개발하여왔다.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하여 학생과 다양한 환경체계를 고려하는 선진국의 실천 이론과 모델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한국적 모델과 이론으로 개발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분석하고 연구주제나 대상, 연구 방법에서 편중성은 없는지,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미 임종호 등은 학교사회복지 학위논문이 나왔던 1970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의 학교사회복지의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전수를 분석하여 연구 경향을 조사한 바가 있다[17]. 그러나 2003년부터 시작된 교육복지 사업에 따라 실천 현상이 크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10년 동안 이에 대한 연구 경향 분석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종호 등의 후속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당시 공동 연구자의 일원으로, 이후 최근 10년간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 초

기부터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연구 경향과 함께 일차 연구와의 변화된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 교육복지 연구가 무엇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학문적 위치를 확인하고, 향후의 발전적인 연구의 방향과 함의를 얻고자 한다.

## II. 사회복지 연구 경향과 교육복지 연구

사회복지에 있어서 연구 경향에 대한 분석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사회사업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나 우리나라 모두 학문이 발달하는 과도기에 전반적인 연구 경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학문적 위상이 정립되고 더 세분화 될수록 전반적인 연구 경향보다는 세부 분야 또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 연구 경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Tripodi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인데, 특히 이 연구는 Weinberger와 Tripodi의 후속연구로 이루어진 것이다. 일차 연구는 미국에서 학술지가 창간된 1956년에서 1965년까지의 사회사업학술지의 연구경향을 조사한 것이며 일차 연구의 연구자 중 한 사람으로 Tripodi는 이후부터 1980년까지의 사회사업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초기부터 1980년까지 전반적인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28][29].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복지 현상이 크게 확대되어 발전하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인데, 이 시기에 사회복지 학회지가 창간된 이후부터 전반적인 연구 경향을 분석한 최군과 김연옥의 연구가 있다[4][19]. 연구 경향의 분석 결과, 외국과 우리나라의 연구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대체로 미국과 한국 모두 경험적 연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과학적 실증주의에 따른 양적 연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19][28]. Tripodi의 연구 결과, 과학적 연구 비중이 일차 연구의 13.8%에서 26.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28], 최군도 사회조사방법을 이용한 통계적 연구가 2기에서 3기 사이에 19.3%에서 43.1%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19], 김연옥의 연구 결과에서도 1980년대

초 경험연구 비율이 15%정도였던 것에서 1996년에는 전체 연구의 83.3%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체 경험적 연구의 92.8%가 양적 연구로 나타나는 등 과학적 실증주의가 주도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4]. 양적 연구의 주도적인 경향은 홍경준과 김인숙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다[5][23]. 홍경준은 양적 연구가 1기에 질적 연구의 1.25배였던 것에서 4기에는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24], 이러한 차이는 2003년 이후에는 6.3배로 더 크게 나타났다[5].

최근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 경향은 사회복지학 전반에 걸친 분석이 아니라 특정 영역과 주제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임상사회사업[12], 교회사회복지[18], 학교사회복지[17], 장애인복지[2], 북한사회복지[8] 등이 그 예이며, 특정 주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지[11], 사회복지조직효과성[9], 사회복지조직 리더십[20], 행정[7] 등이 있다.

한국 교육복지 연구경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초기에는 학교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임경선은 1975-2000년까지 학교사회복지 논문 108편에 대하여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한계성이 있지만, 1975년부터 1980년대까지의 연구가 학교사회복지를 소개하는 내용이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실증적 연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16]. 황창순도 1969-2000년까지 학위 논문과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여전히 주제나 내용, 방법론에 대한 분석의 단위가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22]. 따라서 연구 경향에 관한 내용과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임종호 등에 의해 처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1970년부터 2002년까지 학교사회복지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전수를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연구 주제가 제도화와 모형개발에 대한 문헌이 1990년대 35.4%에서 2000년이후에 21.3%로 줄어드는 반면에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인식에 대한 연구는 12.5%에서 25.5%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연구 대상은 학생이 가장 많지만, 초등학생과 대학생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교사 대상의 연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방법론 측면에서는 양적 연구의 편향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17].

미국의 학교사회복지는 Allen-Mears와 Lane이 연구 경향을 분석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1968년부터 1978년 사이의 학교사회사업 문헌에 대해 두 시기로 구분하고 내용분석을 한 결과, 제도화관련 연구가 17.9%에서 34.5% 증가한데 비해 사회사업 실천방법 연구는 50%에서 34.5%로 감소하였고, 교직원-학부모 관계 증진을 위한 연구가 7.1%에서 24.1%로 증가한 반면에 학생대상의 개별사회사업이나 집단사회사업 연구는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7].

### III. 조사방법

#### 1. 조사대상

교육복지에 대한 연구 발표는 학술대회나 워크숍 등을 통하여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석사, 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으로 조사대상을 제한하였다. 조사대상 논문은 학술교육원(article), KISS, DBPIA, NDSL, RISS, 국회도서관 등의 메타검색에서 ‘교육복지’, ‘학교사회복지(학교사회사업)’,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등의 검색어로 추출하였다. 특히 연구제목과 초록, 저자가 제시하는 핵심어(Key words), 연구의 함의에서 교육복지(학교사회복지)가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자료수집 대상으로 교육복지 사업 학교가 포함되어 있을 뿐, 연구 주제, 결과 및 함의에서 교육복지의 학문적, 실천적 함의를 가지지 않는 경우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논문은 석사 학위논문 317편, 박사 학위논문 21편, 학술지 게재 논문 258편으로 총 596편이다.

#### 2. 분석방법

분석 방법은 대부분의 연구 경향 분석에서 사용되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코딩 작업에 의해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용분석의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26].

본 연구는 임종호 등의 후속연구로 이루어져 이전과 같이 연구 주제, 대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17]. 연구 주제의 범주는 학생의 문제, 교육 복지 욕구/필요성/인식, 전문가 역할, 제도화와 모형 개발 등 4가지로 큰 틀에서는 이전 연구와 동일하나, 세부적으로는 지난 10년간 새로 추가된 주제는 핵심어를 추출하고 범주화하면서 새로운 분류코드를 입력하거나 기존의 범주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구분은 이전 연구와 동일하게 초등생, 중고생, 대학생, 교직원, 전문가, 학부모, 기타로 구분하였으나, 세부적으로는 중고생을 구분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비경험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로 크게 구분하고, 경험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분하였으며, 질적 연구방법은 세부적으로 김인숙의 분류방법을 적용하여 일반적 해석적 연구와 특정 탐구 전통에 따른 질적 연구로 구분하였다[5]. 조사 대상 연구물 중에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들이 있는데, 주요 방법에 따라 구분하였다. 즉,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질적 방법을 병행한 경우[6][9][14]는 양적 연구로 분류하였다. 코딩된 자료들은 SPSS 20.0을 활용하여 다중응답을 고려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조사결과

##### 1. 연도별 교육복지 연구 현황

조사결과, 현재까지 연도별 교육복지 연구 논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소 변동은 있으나 연구물의 전체 편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1995-1999년에 연구물이 94편이었던 것에서 2005-2009년에는 323편이 발표되어 3.4배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90년대 후반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확대로 각 대학에 사회복지학과와 대학원이 신설된 것과 학회지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3년부터 논문이 매년 10편 가까이 증가한 것은 교육복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2004년부터

교육부의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가 도입되면서 실천 현장이 확대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사회복지학회 학술지인 ‘학교사회복지’가 2005년부터 발행횟수를 기존의 연1회에서 연2회로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2010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교육복지사업이 법제화된 것이 이후의 교육복지 연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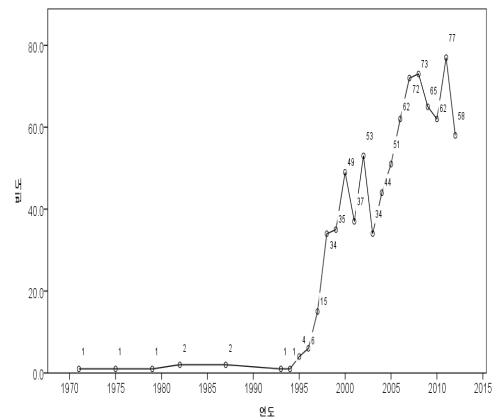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연구물 수(1970-2012)

전체 변화 양상을 학위 논문과 학술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95-1999년의 경우 연구자로 진입하는 석사 학위 논문(61.6%)이 학술지 논문(36.2%)의 2배 가까이 되었지만, 2010-2012년의 경우는 학술지 논문(49.7%)이 석사학위 논문(45.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전의 연구결과와 2003-2012년의 최근 10년간 연구 경향을 단순 비교해보면 전체 연구물 중 석사학위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73.8%에서 53.2%로 줄어든 반면에 학술지 논문은 25%에서 43.3%로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교육복지 연구가 사회복지학 뿐 아니라 교육학과 및 기타 학문적 배경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2012년 사이의 연구물을 문헌의 출처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학 배경이 아닌 논문은 총 17.1%로, 이 중 교육학 배경이 12.9%이고, 기타 학문적 배경이 4.2%를 차지하고 있다. 학위 논문 중에서도 석사 학위 논문의 13.5%, 박사학위 논문의 28.6%가 교육학 학위 논문이며,

기타 학문적 배경으로 8편(2.5%)으로 교육학 배경과 기타 배경의 논문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학문 분야에서의 학위 논문은 법학, 불교학, 청소년지도학과 대부분 행정학 전공의 논문이었다.

학술지 중 사회복지학 배경이 아닌 교육학 배경의 학술지는 '교육정치학연구'(5편), '교육연구논총'(3편)과 '교육법학연구'(2편) 등의 교육학 관련 19개 학회지에 총 28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고, 기타 학문적 배경의 학술지는 '체육과학연구', '법과 정책연구', '한국콘텐츠학회지' 등의 13개의 기타 학술지로 17편이 발표되었다. 특히 교육복지 사업의 운영과 제도화와 관련되어 법학이나 행정학 등의 학문적 배경에서 교육복지정책과 교육복지 사업 평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교육복지가 학생을 돕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이며,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체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접 학문으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연대별로 살펴보면 특히 2007년 이후부터 뚜렷이 교육학 배경의 연구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교육복지 사업이 서울과 부산의 대도시 중심에서 전국 5대 광역시와 이후 인구 25만 명의 도시로 확대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1. 교육복지연구논문의 출처(2003-2012)

	사회복지	교육	기타	계
석사	266 (84.0)	43 (13.5)	8 (2.5)	317 (53.2)
박사	15 (71.4)	6 (28.6)	-	21 (3.5)
학술지	213 (82.5)	28 (10.9)	17 (6.6)	258 (43.3)
계	494 (82.9)	77 (12.9)	25 (4.2)	596 (100.0)

## 2.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현재까지 연대별로 연구주제 변화를 살펴보면 제도화와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전문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실제로 교육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라 학교 내에 상주하는 전문가의 수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새로운 교육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직으로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역할과

직무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2. 연대별 연구 주제 변화

	-1979	1980년 대	1990년 대	2000년 대	2010- 대	빈도 (%)
1. 학생의 문제	.	.	43 (44.8)	192 (35.6)	91 (46.2)	328 (39.1)
2. 교육복지 육구/ 필요성/인식	.	2 (50.0)	12 (12.5)	156 (28.9)	49 (24.9)	219 (26.1)
3. 전문가의 역할	.	.	7 (7.3)	96 (17.8)	40 (20.3)	143 (17.0)
4. 제도화 /모형개발	3 (100)	2 (50.0)	34 (35.4)	95 (17.6)	17 (8.6)	151 (18.0)
전 체	3 (100)	4 (100)	96 (100)	539 (100)	197 (100)	839 (100.0)

2003-2012년의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다루어진 연구 주제는 학생의 문제로 전체의 36.9%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와 비교해보면 10년 전에 비해 학생의 문제를 다룬 연구가 43.9%에서 36.9%로, 제도화와 모형 개발을 다룬 연구가 28.3%에서 13.8%로 감소한 반면에, 전문가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연구는 7.4%에서 21.0%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복지 육구/필요성의 연구도 20.5%에서 28.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학문적 배경에 따른 연구 주제(2003-2012)

	사회복지	교육학	기타	계
1. 학생의 문제	198 (40.1)	12 (15.6)	10 (40.0)	220 (36.9)
2. 교육복지 육구/ 필요성/인식	129 (26.1)	37 (48.1)	3 (12.0)	169 (28.4)
3. 전문가의 역할	120 (24.3)	4 (5.2)	1 (4.0)	125 (21.0)
4. 제도화 /모형개발	47 (9.5)	24 (31.2)	11 (44.0)	82 (13.8)
전 체	494 (100.0)	77 (100.0)	25 (100.0)	596 (100.0)

학문적 배경에 따라 살펴보면 사회복지 배경 연구는 학생문제를 다룬 경우가 40.1%로 가장 많은 반면에, 교육학 관련 학술지에서는 교육복지의 육구/필요성/인식을 다룬 연구가 전체의 48.1%로 가장 많았고, 기타 학문적 배경에서는 제도화와 모형개발이 44.0%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연구 주제가 학문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타 배경의 논문이 법학과 행정학 관련이 많았던 것의 영향으로 보이며, 사회복지학의 연구가 현장에서의 실천적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연구 주제 중 학생의 문제와 관련된 영역을 살펴보면, 최근 10년 동안의 연구는 이전과 같이 학교교육 및 지도(56.5%)가 학생 문제 영역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개인(18.6%), 가정(13.3%), 사회(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와 관련된 주제의 비율은 이전의 73.3%에서 56.5%로 상당히 감소한 반면에, 개인, 가정, 사회와 관련된 문제의 비율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학생 문제의 세부 주제들을 연대별로 분석해보면, 여전히 학교생활적응과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이지만, 학교적응이 1990년대 전체 연구의 33.9%였던 것에서 2010년대엔 23.9%로 감소하고,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도 13.6%에서 4.2%로 감소한 반면에 우울, 자살, 심리치료, 성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이 복합적인 문제에 놓여있음을 고려할 때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족 구성의 형태와 가족기능 연구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한부모가정(6편), 이혼가정(6편), 다문화가정(10편)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다루는 연구가 증가하였고,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는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별로 연구대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전문가 대상의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의 연구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3-2012년의 최근 10년간 조사 연구 중 중학생이 36.2%로 가장 많았고, 전문가가 30.0%, 교직원 2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이전과 비교해보면, 전문가 대상 연구가 11.5%에서 30.0%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학문적 배경에 따라 살펴보면, 사회복지학 배경에서 중학생(38.4%)과 전문가(27.2%)가 주요 연구 대상이라면, 교육학 배경의 논문에서는 교사(51.1%)와 초등학교(27.7%)가 가장 많았고 중학생(19.1%)와 고등학교(4.3%)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교육학 배경

의 연구가 교육복지사업의 인식, 필요성에 대하여 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학 배경에서의 연구가 다소 학생과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체계(17.6%)와 학부모 체계(5.5%)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복지실천이 학생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에 대한 개입하여야 함을 고려해볼 때, 향후에 보다 더 교사와 학부모 체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연대별 연구대상 변화 <다중응답>

	-1979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2012	빈도 (%)
초등생	·	·	7 (7.0)	60 (11.8)	43 (20.4)	110 (13.4)
중고생	1 (50.0)	2 (100.0)	45 (48.0)	191 (37.5)	88 (41.7)	327 (39.8)
대학생	·	·	2 (2.0)	18 (3.5)	4 (1.9)	24 (2.9)
교직원	1 (50.0)	·	21 (22.0)	111 (21.8)	26 (12.3)	159 (19.4)
전문가	·	·	11 (11.0)	93 (18.2)	39 (18.5)	143 (17.4)
학부모	·	·	6 (6.0)	27 (5.3)	8 (3.8)	41 (5.0)
기타	·	·	4 (4.0)	10 (2.0)	3 (1.4)	17 (2.1)
계	2 (100.0)	2 (100.0)	96 (100.0)	510 (100.0)	211 (100.0)	821 (100.0)

### 3. 연구방법

최근 10년간의 연구를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이전과 마찬가지로 경험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편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 10년간 경험적 연구의 비율은 80.6%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기의 사회복지학 연구에서 나타난 경험적 연구의 비율(80.8%)과 유사하다 [24]. 즉, 교육복지 연구 중 경험적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초기 사회복지학 전체의 경험적 연구 비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문헌 연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경험적 연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적 연구 중 패널연구 비율이 2000년대에 2.0%에서 2010-2012년의 경우 6.7%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질적 연구방법론도 1990년대의 14%에서 2010-2012년의 경우 20.6%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5. 연대별 연구방법 변화

(다중응답)

		-1979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2012	전체
비경험적연구	문헌 연구	1 (33.3)	3 (75.0)	24 (24.2)	101 (18.8)	25 (13.3)	154 (18.5)
경험적 연구	설문 조사	2 (66.6)	1 (25.0)	47 (47.5)	316 (58.8)	103 (54.8)	469 (56.4)
	집단프로그램			14 (14.1)	33 (6.1)	10 (5.3)	57 (6.9)
	델파이				4 (0.7)	0 (0.0)	4 (0.5)
	Q방법론				2 (0.4)	2 (1.1)	4 (0.5)
	패널 연구				11 (2.0)	14 (7.4)	25 (3.0)
	심층면접			10 (10.1)	32 (6.0)	29 (15.4)	71 (8.5)
질적 연구	사례 연구			4 (4.0)	38 (7.1)	5 (2.7)	47 (5.7)
	전체	3 (100.0)	4 (100.0)	99 (100.0)	537 (100.0)	188 (100.0)	831 (100.0)

그러나 최근 10년간의 연구물을 학문적 배경에 따라 분석해보면, 사회복지 배경 연구의 85.1%가 경험적 연구로 교육학 배경의 연구물의 74.3%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사회복지 배경의 연구 중에서 양적 연구(71.7%)는 질적 연구(13.4%)의 5.4배로 나타났는데, 이는 홍경준[24]의 결과인 6배나 김인숙[5]의 연구 결과인 6.3배인 사회복지학의 전반적인 연구 경향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교육복지 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적 연구의 세부 방법에서는 일반적 해석적 방법 외에 사례연구가 가장 많았다. 질적 연구의 비율은 교육학 배경(18.9%)이 사회복지학 배경(13.4%)보다 높았지만 다양성 측면에서는 교육학 연구가 일반 해석적 연구와 사례연구에 집중된 반면에 사회복지학에서는 근거이론, 현상학적 방법, 문화기술지 등 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비교해보면,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전체 논문이 경험적 논문이었으며, 학술지 연구물에서 문헌 연구의 비율이 22.4%로 가장 높았다. 학문 후속 세대인 박사학위 논문을 보면, 통합방법에 대한 뚜렷한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최근 10년간 총 21편의 박사학위 논문 중 근거이론을 활용한 질적 연구 2편과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한 2편을 제외한 17편의 양적 연구 중

설문조사에 병행하여 심층 면접을 한 경우가 5편, 델파이 조사를 병행한 경우가 4편, Q방법론과 집단 프로그램을 활용한 효과성 조사 연구가 1편으로, 양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한 박사 논문의 47%가 심층면접을 동시에 사용하는 통합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학문적 배경에 따른 연구방법(2003-2012)

(다중응답)

연구방법	사회복지	교육학	기타	계
문헌연구	71 (14.9)	19 (25.7)	14 (56.0)	104 (18.1)
양적연구	342 (71.7)	40 (55.4)	8 (32.0)	390 (67.9)
설문조사	288 (59.3)	37 (50.0)	6 (24.0)	331 (57.5)
집단프로그램	27 (5.7)	0 (0.0)	1 (4.0)	28 (4.9)
델파이	3 (0.6)	2 (2.7)	0 (0.0)	5 (0.9)
Q방법론	2 (0.4)	1 (1.4)	1 (4.0)	4 (0.7)
패널연구	22 (4.6)	1 (1.4)	0 (0.0)	23 (4.0)
질적연구	64 (13.4)	14 (18.9)	3 (12.0)	81 (14.1)
일반 해석적	32 (6.7)	11 (14.9)	3 (12.0)	46 (8.0)
근거이론	10 (2.1)	0 (0.0)	0 (0.0)	10 (1.7)
현상학적	6 (1.3)	0 (0.0)	0 (0.0)	6 (1.0)
문화기술지	3 (0.6)	0 (0.0)	0 (0.0)	3 (0.5)
사례연구	13 (2.7)	3 (4.1)	0 (0.0)	16 (2.8)
계	477 (100.0)	74 (100.0)	25 (100.0)	576 (100.0)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교육복지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임종호 등의 후속연구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최근 10년간의 연구들을 함께 분석한 것이다[17]. 따라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연구 주제, 연구 대상, 연구 방법의 세 가지 영역에서 내용분석을 실시하면서 필요에 따라 이전의 연구를 재분석하거나 함께 분석하여 연대별 경향을 분석하여 그 동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최근 몇 년간 다소의 증감은 있으나 교육복지 연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으며, 양적인 확대와 함께 석사학위 논문의 비중이 낮아지고 학술지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이 증가하는 등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복지 연구가 사

회복지학 뿐 아니라 교육학, 법학, 행정학 등 인접학문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복지의 서비스 측면뿐 아니라 제도적, 행정적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학제 간 연구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으로 나타났다. 교육학과 사회복지학 배경의 연구자가 함께 연구한 다학문적 접근은 교육복지 이론의 개발과 효과적인 실천방법을 위해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15]. 또한 교육복지법안에 대한 논의가 법학에서 제기되고 있고 교육복지 정책과 행정에 대한 연구도 행정학 등의 배경에서 연구되기 시작하는데, 보다 한국적 실천 모델에 적합한 이론과 정책 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사회복지학의 가치 기반 위에서 학제간, 다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 주제의 분석결과 사회복지학 배경에서는 학생의 문제와 전문가 역할을 주로 다루는 데 비해, 교육학 배경에서는 교육복지 욕구/필요성 연구가, 기타 배경에서는 제도화와 모형개발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나 학문적 배경에 따라 주요 연구 주제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 문제 영역은 최근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생활적응과 학교폭력에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가정과 지역사회, 사회정책과 문화에 기인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학생체계를 다양한 환경체계를 고려하여야 함에도 연구가 지나치게 특정 주제에 편중되어 있어서 실천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향후 교육복지대상 학생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위한 교육복지 정책의 마련을 위해서도 연구 주제가 보다 더 다양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의 대상 면에서도 나타나는데 중학생과 전문가가 주요 연구 대상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저소득층 밀집 학교인 교육복지사업 학교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 효과적인 교육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경험적 연구와 양적 연구에 편중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사회복지학 연구 경향에 비해 질적 연구 비율은 높았으며 세부 방법에서도 김민숙의 연구결과[5]에 비해 근거이론에 대한 편

중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사례연구와 비교적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문 후속세대인 박사학위 논문에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함께 활용하는 통합적인 방법론이 많았는데, 이는 각각의 연구 방법론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사학위 논문이 경험적 연구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비경험적 연구의 중요성 즉, '경험적 연구를 통해 축적된 지식들을 추상적 수준에서 개념화하고 이론화하는 비경험적 연구들의 중요성'에서 볼 때 아쉬운 부분이다[24].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 즉, 기존의 실증주의적 개념으로 쉽게 인정하기 힘들었던 사회복지 실천 기예(art of practice), 장인적 숙련(craftsmanship), 실천적 지혜(practical wisdom), 암묵지(tacit)와 몸으로 체득하는 지식(body knowledge) 등, 또 다른 지식의 근원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3]. 물론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지식 습득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연구들을 분석하지 않고 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더 경험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편중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실천적 지혜 등이 워크숍이나 개별적인 슈퍼비전 현장에서만 다루어지고, 학술적인 의미에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론만을 지식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실천과 이론의 분리, 현장에서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박제화'된 이론으로만 남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보여준다[5]. 따라서 향후의 연구 방향은 보다 이론과 실천의 간극을 줄이며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의 범위를 더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와 실천가가 함께하는 공동 연구, 과학적인 지식뿐 아니라 실천 지혜를 담은 다양한 논의들을 포용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교육복지 연구물의 연구 경향을 볼 때, 보다 효과적인 교육복지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로 연구 주제와 연구 대상, 연구 방법이 편중되어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 문제뿐 아니라 향후에는 가정, 교사, 학교 체계에 직접적 개입의 확장과 함께 우리나라 교육환경과 제도, 문화 등 거시적인



접근 또한 다양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지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실천 지혜를 담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교육정책자문회의, *교육정책자문회의 활동 실적 보고서*, 1992.
- [2] 김경미, 김미옥, “한국장애인복지학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과 고찰: 장애인복지학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3호, pp.269-294, 2006.
- [3] 김기덕, “사회복지 지식의 인식론적 기초”, *비판사회정책*, 제15권, pp.13-43, 2003.
- [4] 김연옥,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에 실린 경험분석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35권, pp.85-105, 1998.
- [5] 김인숙,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 : 동향과 의미”,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1호, pp.275-300, 2007.
- [6] 김지연,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학습조직 수퍼비전의 적용과 효과*,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7] 류상일, 현택수, “행정학에서 복지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3권, 제2호, pp.254-262, 2013.
- [8] 민기채, “북한 사회복지 연구 동향”, *사회복지연구*, 제42권, 제3호, pp.5-32, 2011.
- [9] 박지혜, 박은주, 조상미, “사회복지조직의 조직효과성 연구경향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1호, pp.33-55, 2009.
- [10] 배성찬, *다문화자녀 교육·복지 서비스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11] 배지연, 김은이, “사회적 지지에 관한 사회복지 논문분석-주효과, 완충효과 모델의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245-265, 2003.
- [12] 양옥경, “한국 임상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 연구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2권, pp.225-253, 2000.
- [13] 이기범, “복지사회와 교육: 자유, 평등, 공동체를 위한 교육복지”, *교육학연구*, 제34권, 제2호, pp.21-39, 1996.
- [14] 이기용, *교육복지정책 평가 연구 :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15] 이지혜, 허남순, 김지일, “교육복지실의 의미에 드러난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역할”, *학교사회복지*, 제21호, pp.185-216, 2011.
- [16] 임경선, *학교부적응 중학생을 위한 생태체계적 관점의 학교사회사업실천 사례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17] 임종호, 유영준, 진혜경, “한국 학교사회복지 연구 경향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사업*, 제6호, pp.67-99, 2003.
- [18] 조운희, “교회사회복지 논제분석을 통한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신학과 목회*, 제19호, pp.425-450, 2003.
- [19] 최균,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의 분석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1995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pp.1-14, 1995.
- [20] 하소연, “사회복지조직의 리더십 연구경향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2호, pp.201-223, 2012.
- [21] <http://www.kassw.or.kr>
- [22] 황창순, “새천년 학교사회복지의 연구 방향”, *학교사회사업*, 제4호, pp.173-192, 2001.
- [23] 홍경준,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의 과제”, 1998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31-53, 1998.
- [24] “한국 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의 동향”,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자료집*, pp.1-14, 2002.
- [25] 홍봉선,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1호, pp.253-282, 2004.

- [26] A. Rubin and E. Babbie, *Research methods in social work*, 1997, 성숙진, 유태균, 이선우 역, *사회복지조사방법론*, 나남출판, 1998.
- [27] P. Allen-Mears and B. A. Lane, "A content analysis of school social work literature, 1968-1978," In R. Constable and J. Flynn (Eds.), *School Social Work: Practice and research perspectives*, pp.49-72, Homewood, IL.:Dorsey Press, 1982.
- [28] T. Tripodi, "Trends in research publication : A study of social work journals from 1956-1980," *Social Work*, Vol.29, pp.353-359, 1984.
- [29] R. Weinberger and T. Tripodi, "Trends in types of research reported in selected social work journals, 1956-65," *Social Service Review*, Vol.43, pp.439-447, 1969.

저 자 소 개

진 혜 경(Hye-Kyung Jin)

정회원



- 2000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문학석사)
- 2005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문학박사)
- 2007년 8월 ~ 현재 :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학교사회복지